

함께함께

제3호

발행일 2024.01.31.

교육

▲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뉴스쿨 1호 독립언론 <뉴스하다>

뉴스쿨 창업인큐베이팅

뉴스쿨 2기 1단계 수료

뉴스쿨 펠로우 수련

▲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출범

저널리즘, 이기주의에서 함께주의로

함께·독립 정신을 담은 로고

KINN지침

프로젝트룸 마련

협업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X 뉴스타

파 협업 프로젝트

뉴스타파: 카메라를 든 목격자들

포럼: 그들 각자의 현장

뉴스타파펀드 전달식

출판

▲ 도서출판 뉴스타파: 기록과 수집의 힘

벼랑 끝의 대통령기록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초토화 폭격

공유

▲ 북카페 뉴스타파: 시민교양프로젝트

가짜뉴스에서 살아남기

열혈 시민을 위한 교양 맞춤법

▲ 함께프로젝트

참여연대 X 뉴스타파

뉴스민 X 뉴스타파

보고

▲ 함께재단을 만난 사람들

사무국 새 멤버 영입

함께재단 이사회, 뉴스타파 대표 선임

▲ 2023 회계결산 및 후원회원 현황

예고

▲ 도서 <압수수색>(가제) 출판 예정

(재) 뉴스타파함께센터 withnewstapa.org

제3호 2024년 1월 31일 자

발행인 김종배 기획·제작 조연우

후원문의: 02-6956-3665

withnewstapa@newstapa.org

다시 새해,
새 달력을 바라보며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청룡의 해라고 떠벌리며, 천지개벽을 방불케 하는, 우렁찬 역사가 펼쳐지리라는 기대에 설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웅졸한 사람은, 장대한 우주와 대자연의 운행에 무슨 2023년, 2024년 따위의 '마디'나 '매듭'이 있을까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그야말로 '진짜' 적자 생존의 슬기로 네안데르탈인 시대를 넘어선 호모사피엔스는 '함께 살아가기'위한 방편으로, 그리하여 시간을 '함께 살기'위한 다짐으로, 달력의 역사를 발명한 것은 아닌가? 제멋대로의 가설에 빠져들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때마다 얼핏 허황되어 보이는 가설의 반침들이 불쑥불쑥 일어나 힘을 실어주곤 합니다. 그것은 이른바 적자생존론에서 진짜 '적자'가 적을 잘 무찌르는 강한 자가 아니라, 따스한 친화력으로 친구를 부풀려나가는 다정함, 공감의 '거울뉴런'이라는, 생명과학자들의 탐구 성과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펴낸 영장류학자는 "진화의 승자는 최강자가 아니라 가장 다정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가 우리 정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동적으로 직관적으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어난다. 사실 우리의 뇌가 다른 사람의 뇌와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재주 덕분에 대체로 우리는 인간다울 수 있다"

<거울뉴런 이야기>에서 과학자 크리스티안 케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뉴런'의 공감 본성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움'을 가꾸어내게 되었다"

우리는 인류로서만 오로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이의 육성도 저절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면서도, 막상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망설여지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 실마리의 바탕을 돌아보게 하는 탐구들입니다.

그 '인간다움'의 선한 본성이 무참히 짓밟혀가는 이 즈음에, 달력의 탄생을 새삼 되새겨보는 것은 다른 뜻에서가 아닙니다.

아아, 새해 들어 우리는 함께 '인간다움'의 세상을 다시 열어갈 수 있을까...

이사장 김종배 절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

뉴스쿨 1호 독립언론 <뉴스하다>

한국 언론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시작한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뉴스쿨)로 첫 비영리 독립언론이 탄생했습니다.

이창호 기자(뉴스쿨 1기)와 홍봄 기자(뉴스쿨 2기)가 2023년 6월 설립한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입니다. 제호 '뉴스하다'는 '뉴스'에 동사 '하다'를 붙여 망가진 지역 언론 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 언론사에서 10년가량 일한 두 기자는 “기성언론 테두리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영리 독립언론을 만들었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스쿨에서 배운 탐사보도 기법과 비영리 언론사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언론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하다>는 인천시 홍보예산 해부 프로젝트, 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 등 권력과 자본 감시 탐사보도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 '사법 정의하다: 검찰 금고 열다'는 뉴스타파, 뉴스민, 부산MBC, 경남도민일보, 충청리뷰 등과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뉴스하다'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검사와 검찰직원에게 '국정감사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례를 추적해 최초 보도했습니다. 또 공상훈·김우현·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이 특활비를 연말과 퇴임 전에 몰아쓴 사실을 취재하는

등 12건의 검찰 특활비 예산 검증 보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뉴스하드를 포함한 공동취재단은 제33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주언론상을 수상한 뉴스하다 홍봄, 이창호 기자

뉴스쿨 창업인큐베이팅 돌입

2022년 3월 뉴스쿨 1단계를 시작해, 1년 간 펠로우 훈련을 거치고 2023년 9월, 3단계 창업 인큐베이팅에 돌입한 두 독립언론이 있습니다. 미디어 감시 전문 탐사보도 매체 <뉴스어디>, 법조 전문 보도 매체 <코트워치>입니다.



<뉴스어디>를 설립한 박채린 기자는 민주언론실천연합 활동가, 뉴스쿨 펠로우를 거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언론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잊지 않고, 한국언론의 고질병인 검증 소홀, 정권에 따른 부침, 상업화 등을 타파하겠다는 목표로 미디어 감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어디'는 창간 특집으로 '기사형 광고' 추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와 문제 기사를 전수조사한 특별페이지 '내가 본 기사, 사실은 광고라고?'를 만들고, '기사형 광고'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합니다.

<코트워치>는 법원 취재를 바탕으로 '한 사건에 대한 가장 완전한/완결된 기록(Complete Records)'을 전하는 미디어입니다.

'코트워치'를 설립한 김주형, 최윤정 기자는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투는 일은 법원에서 시작되지만, 대다수 언론 보도는 검찰 수사에 집중돼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보도하기 위해 코트워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이태원 참사 재판기록' 보도에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익명의 협박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지난해 여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겠다'고 엄포를 냈습니다. '익명의 협박자들'은 수사가 끝나고 간 후, 이들의 재판을 추적하는 보도입니다.



(왼쪽부터) 오나영 함께재단 데이터기자, 박채린, 최윤정, 김주형 기자

뉴스쿨 2기 1단계 수료



2023.7.15. 뉴스쿨 2기 1단계 수료식 현장

뉴스쿨 2기는 21명의 펠로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수는 기성언론 시스템에 회의를 느끼고 제대로 된 탐사보도를 해보겠다는 의지로 참여한 현직 언론인이 많았습니다.

2023년 4월 1일 "탐사보도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7월 1일 마지막 강의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1단계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뉴스쿨 2기 펠로우 수련

뉴스쿨 1단계 탐사보도 교육을 마치고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친 교육생들이 2단계 펠로우로 독립언론 창업을 위한 훈련을 합니다. 2기 펠로우로 선발한 세 명의 교육생이 2023년 10월부터 뉴스타파 뉴스룸에서 펠로우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임병선, 박소희, 김지우 펠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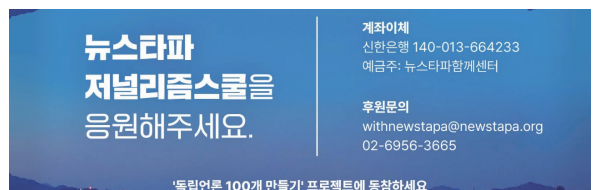
보험사와 금융컨설팅firm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지우 펠로우는 경제와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투명한 시장을 위해 양질의 정보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날카로운 기사를 쓰고 싶어 뉴스쿨에 왔습니다. 금융

범죄를 추적하고 금융기관의 권력 남용을 고발하는 독립언론을 창업해 시장의 비대칭 정보를 제거하고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펠로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희 펠로우는 지역과 노동, 환경에 주목합니다. 자치단체의 권한은 커지는 데 반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지역언론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병선 펠로우는 기후와 생태 분야 비영리 독립언론을 꿈꿉니다. '비영리'와 '탐사보도'가 기후 변화 보도에 무엇보다 절실한 요소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기에 더 나은 세상'을 목표로 우리사회 기후와 생태 문제를 탐사 취재하고 해결책을 발굴해 내려고 합니다.

이들 중 선발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새로운 독립언론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뉴스쿨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독립언론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이 절실합니다.



뉴스타파
저널리즘스쿨을
지원해주세요.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13-664233
예금주: 뉴스타파함께센터

후원문의
withnewstapa@newstapa.org
02-6956-3665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세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출범: 함께재단, '함께 저널리즘' 허브로 도약

저널리즘, 이기주의에서 함께주의로

함께재단이 뉴스쿨을 시작한 궁극적인 목적은 실력있고 진취적인 비영리 독립언론을 더 많이 만들고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성언론 시스템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망가진 언론 생태계를 건강하게 물들이고, 우리 사회를 이롭게 만들겠다는 뜻을 가진 독립언론이 한 데 모여 ‘함께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2023년 9월 1일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orea Independent Newsroom Network; KINN)’를 구축했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좋은 보도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독립언론들이 네트워크 회원사로 활동합니다.

KINN 소속 회원은 크게 정회원과 제휴회원으로 구분합니다.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을 수료하고 함께재단 독립언론 창업 심사를 거쳐 창업한 독립언론사는 정회원 자격을 갖습니다.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한 독립언론사 중 함께재단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는 제휴회원 자격을 갖고 활동합니다.

현재 KINN 회원 언론사는 <뉴스어디>, <코트워치>와 인천·경기 지역 탐사보도매체 <뉴스하다>, 기독교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독립언론 <뉴스앤조이> 등이 있습니다. KINN 회원사는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저널리즘을 수행하며, 소모적인 자사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함께’ 정신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속 회원사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비영리' '독립'언론사 중 같은 목표와 뜻을 가진 매체들이 함께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원사 조건 및 지원 등을 상세하게 정비하는 중입니다.

함께재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KINN 규정 및 회원사 현황과 주요 탐사보도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독립 정신을 담은 로고

KINN 공식 로고는 네트워크 이름을 중심에 둔 둥근 원형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검은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길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른 수많은 선이 겹쳐 한 개의 원처럼 보이는 형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독립언론은 각자 뚜렷한 특징이 있고 정체성이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중점으로 취재하는 콘텐츠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공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언제나 협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을 지향합니다. 이런 특징을 담아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KINN 지침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사는 아래 지침과 함께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과 제반 취재보도준칙,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취재보도준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 사회개혁을 위한 저널리즘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는 저널리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바로 세우고, 사익 추구가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널리즘을 수행한다. 사회개혁은 조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 연대와 협업

우리는 경쟁과 자사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함께’ 정신을 지킨다. 개별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 협력 저널리즘을 수행한다. 회원사 간 협업, 취재 결과 공유를 넘어 취재 기법과 데이터, 조직 운영 노하우, 공동 자금 마련 등 언론 생태계 발전을 모색한다.

▲ 보도 탁월성

우리는 보도자료나 대변인 발표, 권력자의 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를 해,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독보적인 콘텐츠 생산을 지향한다. 의견이나 주장, 타 매체의 뉴스 큐레이션 등은 배제하고 공동체를 위해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독보적 뉴스 및 프로그램을 만든다.

▲ 독립성

우리는 비당파 비영리 독립언론으로서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영향을 일체 배격한다. 상업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고 후원회비 또는 구독료, 크라우드펀딩, 공동 자금 조성, 그리고 콘텐츠 2차 가공 등 수익사업을 토대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재원 모델을 갖춰 재정 독립성을 기한다. 뉴스 및 프로그램에 후원회원 또는 기부자의 영향을 일체 받지 않는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 진영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저널리즘에 헌신한다.

▲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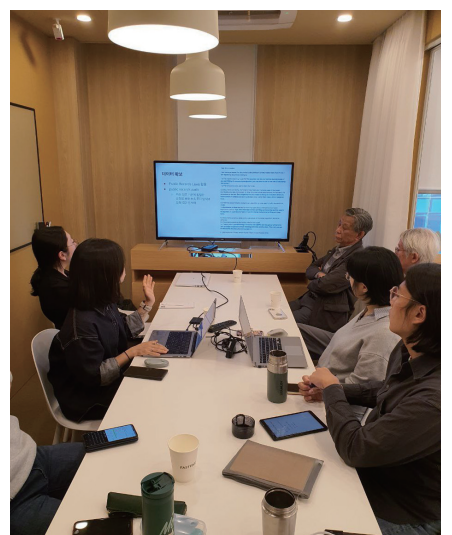
우리는 재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수용자가 우리 매체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직원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 뉴스 및 프로그램 제작 시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취재원과 자료 소스도 투명하게 공개해 수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검증 가능하게 한다.

▲ 품위 유지

우리는 시민 후원으로 설립, 운영하는 독립언론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사회통념 및 상식에 벗어나거나, KINN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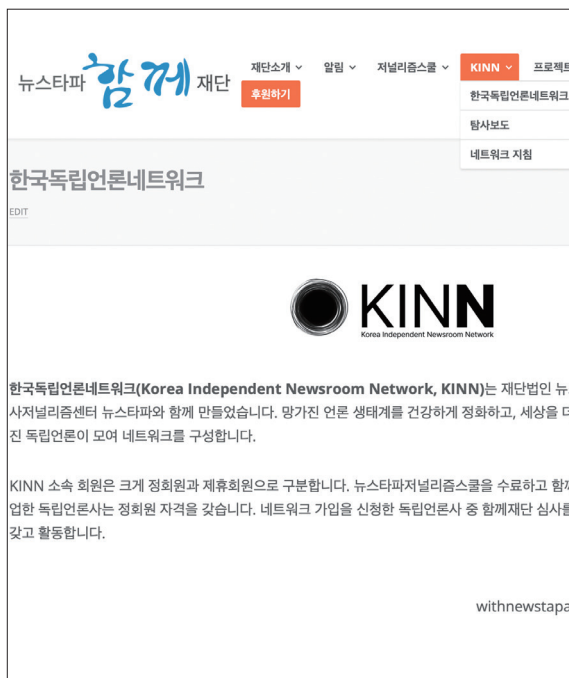
함께재단은 네트워크 출범과 함께 프로젝트룸을 마련했습니다. 창업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독립언론과 재단이 활발히 소통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현재 <뉴스어디>, <코트워치> 창업팀과 함께재단 사무국 활동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펠로우 수련생이나 KINN 소속 언론사가 자유롭게 모이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서울역 프로젝트오피스 회의실에 모인 창업팀과 펠로우, 재단 실무진



프로젝트룸에 KINN로고를 부착하는 김주형 코트워치 기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X 뉴스타파 협업 프로젝트

뉴스타파: 카메라를 든 목격자들

2023년 9월 14일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DMZ영화제에 새롭게 선보인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타파 기획전'입니다. 기획전 <뉴스타파: 카메라를 든 목격자들>은 지난 10여 년 간 독립언론으로 활약해온 뉴스타파의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돌아보고, 독립PD, 독립감독과 협업해 제작한 시사다큐프로그램 '목격자들'을 조명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획전에서 뉴스타파필름이 만든 새 영화 <판문점>을 포함한 장편영화 세 편과, '목격자들' 세 편을 영화 스크린으로 공개했습니다.

<판문점>은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한 판문점의 숨은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원전 시설이 밀집한 월성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월성>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을 다룬 <자백>도 상영했습니다.

또 독립PD, 독립다큐 감독과 협업해 만든 <목격자들> 시리즈 중 엄선하여 <두 신부 이야기>, <성수동 전쟁이들>,

<문명의 끝에서>를 상영하고, 새로운 세 편의 단편도 공개했습니다. 제주 4.3을 그림으로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빨간 색연필>, 자신이 가꾸어 온 땅을 개발로 잃은 노인의 싸움을 따라가는 <후방 땅>, 승자독식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시장을 성찰하는 <소액주주 상륙작전>으로, 모두 끈질기게 자신의 주제에 천착한 독립다큐 감독들의 작품입니다.

포럼: 그들 각자의 현장



(왼쪽부터) 송원근 뉴스타파PD, 김옥영 작가, 하셋별 감독, 박정남 독립PD, 박소현 감독, 모진수 PD, 정준희 교수

DMZ 뉴스타파펀드 전달식

2023년 11월 1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2023 뉴스타파펀드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뉴스타파펀드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 Docs)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로, DMZ Docs 마켓에 참여한 작품 중 1편을 선정해 1천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독립미디어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조세영 감독의 <K-NUMBER>를 뉴스타파펀드 지원작으로 선정하고, 제작팀에게 제작비를 전달했습니다.

장해랑 DMZ Docs 집행위원장은 “‘뉴스타파펀드’는 열

악한 환경에서 제작하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DMZ Docs와 뉴스타파함께재단이 함께 독립감독, 독립PD들과 연대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세영 독립감독은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며 후원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원 증서에 ‘뉴스타파함께재단 후원회원의 소중한 회비로 조성한 제작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원들의 응원만큼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NUMBER>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된 ‘미오카’

가 자기 뿌리를 찾으려 하지만 입양을 둘러싼 부조리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상반기에 뉴스타파 독립감독 협업 프로그램인 <목격자들>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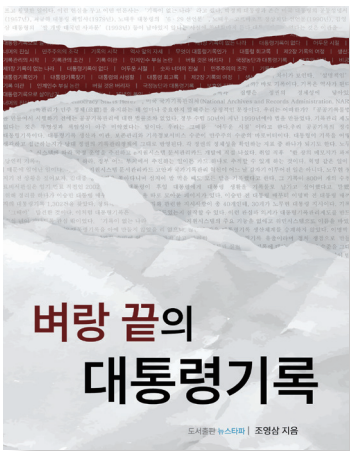
뉴스타파펀드 전달식에서 수상소감을 말하는 조세영 독립감독



DMZ영화제에서 뉴스타파를 응원하는 영화인들



도서출판 뉴스타파: 기록과 수집의 힘, 두 권의 책 출판



벼랑 끝의 대통령기록

2023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이지만 정작 우리는 잘 모르고 있던 ‘대통령기록’ 핵심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대통령기록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언론에서 언급하는 대통령기록 관련 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윤석열 검찰은 왜 대통령기록관을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기록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까지 상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펴냈습니다.

저자는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정부부처, 서울기록관 등 주요 기관을 ‘섭렵’하고 지금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독보적 대통령기록 전문가,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야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기록이 없었고,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서(1967년), 최규하 대통령 취임사(1979년),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문(1987년)’, 노태우-고르바초프 정상회담 선언문(1990년) 등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매우 참담하다. 대통령기록물법이 생기고 조금씩 기록관리가 정비되고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책은 기록관리라는 전문 분야 중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저자 서문 중-

출판을 기념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회 원님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도 광주, 부산,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연 '회원 초청 북토크'에 조영삼 저자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참여해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토크에서 김용진 대표는 2019년 뉴스타파가 최초 공개한 노무현 친필 메모 보도를 회상하며 책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로 노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266장을 입수했습니다. 김 대표는 메모 중 ‘썩어빠진 언론’, ‘언론과의 숙명적 대척’ 등 문구를 기억하며,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얼마나 부딪혔으면 혼자 고심하다 이런 메모를 썼을까 생각했다며, 이 종이 사라지지 않고 대통령기록으로 잘 보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시민이 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조영삼 저자는 노 전 대통령이 ‘기록하지 못할 말은 하지 마라’라는 말을 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중에 끄적인 메모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가서 비서관이 수집해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적 의식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든 궁극적인 목표는 적극적인 대통령기록 공개라고 말했습니다.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가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서라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지정기록 보호 제도는 퇴임 후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악용되는 등 기록을 잘 보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일정 기간 보호해줄 테니 중요한 기록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 기간이 지난 대통령기록은 국민에게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설명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행정기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부 전문 연구가들만 관심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11.30.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북토크 현장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초토화 폭격

뉴스타파는 몇 년에 걸쳐 수집한 한국전쟁 관련 해외사료를 바탕으로 3년 전,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3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중 1부 <초토화 폭격>은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무거운 주제임에도 유튜브 조회수 50만 회를 기록(2024.1.28. 기준)했습니다. 취재팀이 이 시리즈를 만들며 수집한 사진이 수천 장에 달했고, 영상 자료 역시 클립 단위로 수천 건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회비로 오랜 시간을 들여 수집한 소중한 자료들을 다큐 한 편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한국전쟁 관련 회귀 자료를 수집해온 전갑생 박사,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그리고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이 TF를 꾸려 책 만들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은 2023년 7월 27일,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초토화 폭격> 사진집이 탄생했습니다.

‘초토화’는 한국전쟁을 떠올릴 때 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북한은 미 핵잠수함 켄터키 입항을 전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초토화’는 북한에 그치지 않습니다. 70여 년 전 한국전쟁은 이미 그것을 한반도 전역에서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초토화 폭격>은 한반도 ‘초토화’라는 궤멸적 결과를 초래한 미군의 폭격 양상을 280여 장에 이르는 사진 자료를 토대로 재현한 책입니다. 책에 수록한 사진은 한국담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해외 사료 수집팀이 미국 국립문서기록청(NARA)과 미 해군 역사유산사령부(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등에서 3년 이상 검색 작업을 해 입수했습니다.

이 책은 기획부터 자료 수집, 집필과 조판 및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내부 제작진이 맡아 완성했다는 데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 인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인 '도서출판 뉴스타파'는 대형 출판사 같은 화려한 편집 기술이나 대규모 마케팅 역량은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물과 출판한 책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내부 출판팀과 저자들이 활발한 소통,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을 거쳐 한 권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2부인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심리전>을 포함해 새로운 책 출판을 준비 중입니다. 곧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7.13.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책표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최윤원 기자와 조연우 편집자

북카페 뉴스타파: 시민교양프로젝트

2023년 서울 충무로 북카페 공간을 활용해 일반 시민 대상 교양강의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함께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저널리즘 교육과 독립언론 양성에 주력해왔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장기간 진행한 데이터저널리즘스쿨과 탐사보도 연수 프로그램을 확장, 심화해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즘 교육이 언론인 지망생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뉴스를 선별하고,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읽는 역량은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핵심 교양입니다. 함께재단에서 시민교양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로 두 개의 파일럿 강의를 열었습니다. 김용진 대표의 <가짜뉴스에서 살아남기>, 박태하 작가의 <열혈 시민을 위한 교양 맞춤법>입니다.

가짜뉴스에서 살아남기

시민교양프로젝트 첫 시작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가짜뉴스' 타령을 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표현을 무한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대체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진짜 진원지는 어디인지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가짜뉴스에서 살아남기>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 강의에서 김용진 기자는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 기사의 출처를 살피고, 의심하는 읽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 '소식통' 등 불확실한 출처에 의존한 기사는 아닌지,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의 문장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않은지 관찰하며 기사를 읽는 겁니다.



2023.6.1. 북카페 뉴스타파 가짜뉴스 강의 현장

물론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목적 없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시각, 비판적인 의식으로 뉴스를 보는 시민이 늘어나면 가짜뉴스가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오염된 언론 환경이 깨끗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열혈 시민을 위한 교양 맞춤법

두 번째 강의는 글쓰기 전문 강사 겸 편집자로 활동하는 박태하 작가의 <열혈 시민을 위한 교양 맞춤법>입니다.



박태하 작가

7월 11일 목요일, 하루종일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 저녁에 충무로 북카페 뉴스타파에 열다섯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박태하 작가는 강의를 준비하며 전공도 아닌 맞춤법을 교양으로 듣기 위해 강의 신청을 한 분들을 떠올리며 '열혈 시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극한폭우'를 뚫고 모인 분들이라니, '열혈' 시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태하 강사는 맞춤법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소리와 글을 최대한 덜 혼동되게 표현하려는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맞춤법'이란 단어 그대로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 사이를 가장 적절하게 '맞추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자주 틀리는 표현, 유용한 맞춤법 지식, 쉽게 기억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도록 빠짐없이 경청하며 질문을 이어간 시민들 덕분에 유쾌한 분위기 속에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2023.7.11. 북카페 뉴스타파 맞춤법 강의 현장

뉴스타파함께재단 시민교양프로젝트는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 여러분과 나눌 만한 지식, 꼭 필요한 강좌를 구성해 시민교양프로젝트를 계속합니다. 새로운 강의 소식은 재단 유튜브, SNS 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프로젝트

참여연대 X 뉴스타파



2023.6.27.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북콘서트 현장

검찰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참여연대가 2023년에는 <검찰+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검찰 현실을 짚고, 시민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함께재단과 참여연대가 함께 기획해 검찰보고서 북콘

서트를 열었습니다. 7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패널로 나와 윤석열 정부 1년과 검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북토크는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민 X 뉴스타파

2023년은 뉴스타파가 태동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3월 1일, 도서출판 뉴스타파에서 기획도서 <뉴스타파하다>를 출판했습니다. 뉴스타파가 태동한 배경, 비영리 비당파 독립 탐사매체가 기성매체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뉴스타파가 지향하는 가치와 새로운 도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뉴스타파하다> 도서로 조금 색다른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독립언론 <뉴스민>과 함께 독립언론

의 가치와 방향을 묻고 해법을 찾는 토론형 북토크입니다.

함께재단은 올해에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뉴스민>과 같은 소규모 독립언론을 알리고, 이들과 연대 협업할 다양한 통로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2023.5.11. 대구 경북대학교 북토크 현장

뉴스타파굿즈



2023년 겨울, 뉴스타파스토어에 새로운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 쓸 수 있는, 의미있고 실용적인 굿즈를 소개합니다.

굿즈에 새긴 DEFENDERS OF THE TRUTH는 "진실의 수호자"를 뜻하는 뉴스타파 영문 슬로건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뉴스타파의 가장 큰 목표는 진실 추구였습니다. 이 슬로건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모인 수만 명의 후원회원을 상징합니다.



겨울티셔츠2023
뉴스타파 슬로건을 새긴 기모 티셔츠

정면에 "진실의 수호자" 슬로건, 뒷목에는 뉴스타파 로고를 넣은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안감에 얇은 기모 처리를 해 매우 가볍고 따뜻합니다.



진실의 머그
블록처럼 쌓을 수 있는 슬로건 머그컵

"진실의 수호자"와 뉴스타파 로고를 양면에 새긴 머그컵, 진실의 머그. 겹겹이 쌓을 수 있는 형태로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함께재단을 만난 사람들

사무국 새 멤버 영입

2023년 9월, 함께재단에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습니다. 독립언론 양성 프로젝트,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이하 ‘뉴스쿨’) 1기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재단에 데이터저널리스트로 입사한 오나영 씨와 뉴스쿨 2기 1단계 과정 수료 후 재단 활동가로 입사한 김민호 씨입니다.

조연우 사무국장이 두 멤버와 만나 함께재단에 합류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뉴스쿨을 거쳐 재단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언론인을 꿈꾸고 뉴스쿨에 지원했을 텐데, 어떻게 재단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나요?

민호: 사실 처음 재단 활동가 채용 공고를 봤을 때는 저 정도의 경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뉴스쿨을 담당했던 함께재단 장광연 PD에게 재단 활동가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뜻을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때 일할 맛이 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독립언론 연대와 협업이라는 재단의 뜻이 저와 잘 맞을 것 같아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나영: 뉴스쿨 1기 펠로우 과정을 밟던 중에 함께재단에서 기획한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의 데이터저널리즘을 책임지고 담당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니다. 당시 저는 뉴스쿨 3단계 창업 인큐베이팅에 지원할 준비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고민 끝에 IT 기술에 익숙한 제 능력을 보다 넓은 독립언론 판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보자는 마음으로 재단에서 데이터저널리스트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민호: 사무국 활동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국 내 사무 업무와 함께 뉴스타파함께센터에 위치한 북카페 매니저로 카페 운영을 담당합니다. 또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SNS도 관리합니다. 뉴스타파 굿즈 스토어 운영도 제 담당이에요.

나영: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소속 언론들을 데이터/개발 측면에서 지원하고 때로는 데이터를 활용해 취재도 함께 합니다. 현재 뉴스쿨 3단계 창업에 돌입해 KINN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한 동료들이 있어요. 이들이 독립언론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등도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와 취재 결과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방안을 고민해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특별 페

이지 제작도 합니다. 지금은 함께재단 내부 홈페이지도 체계적으로 리뉴얼해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재단 홈페이지는 2월 중순 공개합니다.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다면?

민호: 앞으로 더 많은 분이 함께재단을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단이 더 성장해서 독립언론을 꿈꾸는 분들이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가 있으니 나도 독립언론을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네트워크 소속 매체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북카페도 잘 운영해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싶어요.

나영: KINN 소속 독립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및 스토리텔링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데 힘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뉴스쿨을 시작할 때부터 쪽 탐구해온 분야인 외교, 국방 분야 탐사보도도 관심을 놓지 않을 생각이에요.

나영, 민호: 더 다채롭고 폭넓은 독립언론이 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재단 이사회, 뉴스타파 대표 선임



2023.2.24. 뉴스타파함께센터 스튜디오 정기이사회 모습

함께재단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거버넌스 기구로서, 매 2년 임기로 활동하는 뉴스타파 대표자를 선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함께재단과 뉴스타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표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함께재단 이사회에서 후보자 심사를 해 대표자를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정기이사회에서 뉴스타파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각 후보자 인터뷰를 한 뒤, 이사진이 최종 회의를 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열린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김용진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김용진 대표는 거대 언론사에 포획당한 한국 언론 현실에 '연대와 협업'만이 독립언론이 살 길이라며, 새로운 2년 동안 적극적인 협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재단 사람들

이사진

김중배 전 MBC 사장
김종철 전 동아투위 위원장
양길승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강병국 변호사
김동현 동아투위 부위원장
서봉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정진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경 노무사
양혜진 뉴스타파 후원회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감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사무국

조연우 사무국장
장광연 협업PD
오나영 데이터저널리스트
김민호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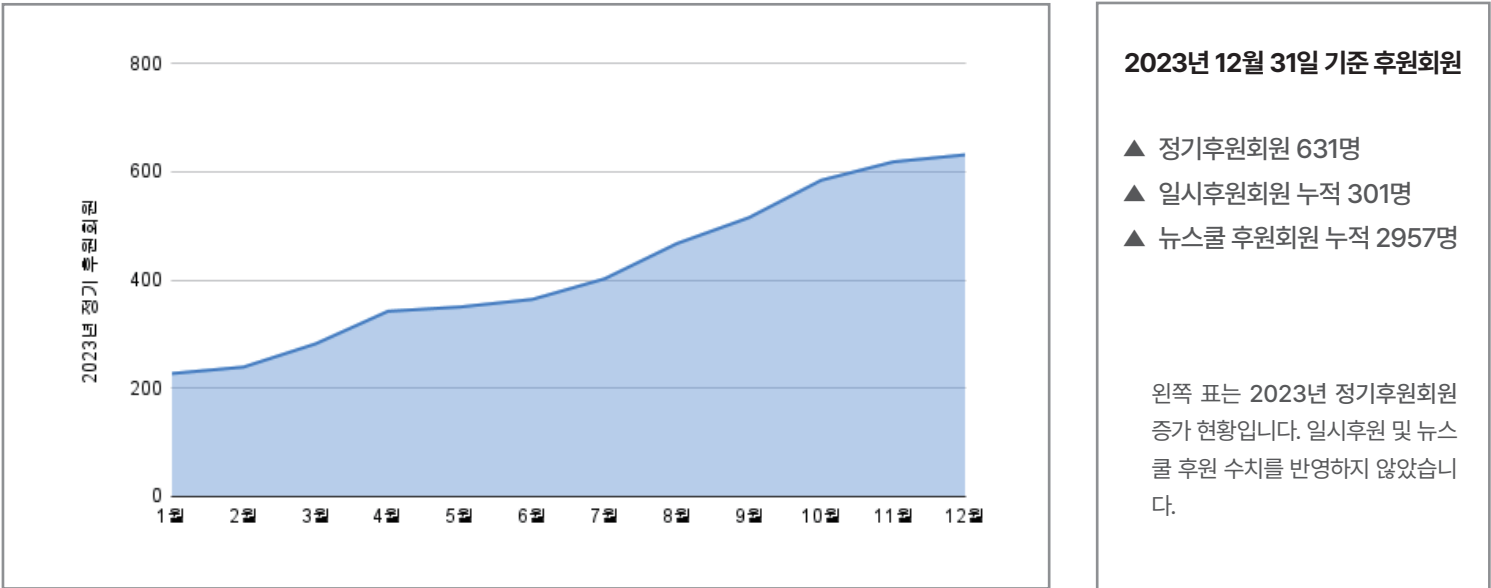
자문위원회

김동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주) 최고연구책임자
문정현 독립감독
박봉남 독립감독
박정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송창준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송호용 한국독립피디협회 회장
신권화정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염종선 창비 대표이사
예종석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정란아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3 회계보고(가결산)

[회계기간: 2023.1.1.~2023.12.31.] 단위: 원		
과목	금액	세부내용
수익	570,806,045	
정기회비	56,660,120	
일시회비	110,510,000	
프로젝트후원	299,570,147	뉴스쿨 프로젝트 후원
상품매출	16,764,169	뉴스타파 굿즈 매출
대관수입	6,478,630	함께센터 공간 대관
카페수입	27,805,145	
도서매출	24,724,171	<도서출판뉴스타파> 출판 도서 매출
콘텐츠매출	18,181,818	
이자수익	1,166,284	
잡이익	8,945,561	언론재단 출판지원금 680만 원가량 포함
비용	545,799,374	
인건비 등	163,293,293	임직원, 일용직 급여 및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여비교통비	1,960,040	
통신비	1,231,820	
세금과공과금	10,965,612	사회보험 등 각종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1,769,430	
지급임차료	42,544,269	사업장 임차료, 프로젝트룸 임차료
수선비	2,060,000	
대외협력비	160,000	
배송비	5,021,011	굿즈 발송대행 수수료, 출판 도서 물류비
교육훈련비	17,000	
회의비	4,103,225	이사회 및 소위원회 등 각종 대내 회의비
소모품비	6,212,596	북카페 소모품 등
지급수수료	11,005,173	회원관리시스템, 어도비 및 각종 업무용 시스템 사용료 등
카페재료비	10,328,219	
사업비	40,044,180	공모전 제작비 지원금
교육사업비	183,754,597	뉴스쿨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장학금, 창업지원금 등
도서인세 등	4,000,875	저자 인세 지급
외부용역비	26,051,208	영화 <판문점> 후반작업비 등
굿즈매출원가	16,925,017	
도서제작원가	14,019,720	
이자비용	78,137	
잡손실	253,952	
당기순이익	25,006,671	

2023 후원회원 현황



도서출판 뉴스타파, 신간

압수수색

(가제)

"한 번 더 들어오면 그땐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괴랄한 시대, 압색 한 번 안 당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윤석열 정권의 압수수색은 진짜 언론이라는 공인인증이지"



애써 농담을 나누지만 압수수색은 트라우마로 남게 마련이다. 그걸 분노로, 저항의 에너지로 승화해 나갈 뿐이다.

별로 닮은 점이 없어 보이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에게 공통점이 생겼다. 셋 다 검찰에 집이 털렸다.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김용진 대표는 약 3개월 뒤에.

지하철 3호선, 때늦은 출근길이다. 아침 낯선 벨소리를 시작으로 전쟁 같은 몇 시간을 보냈다. 오후 시간이라 열차 안은 한적했다. 몇 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뭔가 허전했다. 아 지금 휴대폰이 없지. 잠시 잊고 있었다. 하릴없이 열차 안을 둘러본다. 모두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게임하는 청년, 드라마 보는 중년, 카톡하는 노년. 갑자기 지하철 객차 안 좁은 공간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이다. 늘 한 몸처럼 달고 다니던, 연장한 신체가 잘려 나간 듯한 상실감이 몰려왔다. -본문 중에서

아침 출근길 무렵 세 사람 집에 들이닥친 검사와 수사관들은 모두 이름도 무시무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소속이다. 예전 거물 정치인, 재벌 총수들을 잡아들이던 바로 그 특수부의 바뀐 이름이다. 전국 검찰 중 최정예 부대가 뉴스타파 3인을 겨냥했다. 나름 거물 취급을 받은 걸까?

이들이 받는 혐의도 똑같다.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좀 김이 빠진다. 고작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 청권의 막강 무력 반부패부 검사 10여 명과 수십 명의 수사관이 달려들다니.

오늘날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년 판결) -본문 중에서

그래도 용산이 뉴스타파를 지목해 ‘희대의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체면은 좀 살았다. 집권당 대표는 한층 더 치켜세워졌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할 국가반역”이고 일급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중앙지검 반부패부를 투입할 만하다. 하지만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기재된 피의 사실은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검찰과 집권당을 조롱했다. 검찰 수사 대상이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 비판 언론이라고.

2024년, 출간 박두!

원본

압수수색도서예고

출판예정일	2024년 중		책명	압수수색(가제)
저술자	성명	한상진 봉지욱 김용진		
	직업	기자		
출판사	도서출판 뉴스타파			
목차	▶국가반역 ▶침탈 ▶포렌식 ▶망상 ▶반격 ▶연대 ▶노림수			
책을 낸 사유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법원에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40만 건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 전 인구의 100분의 1이다. 백 명 중 1명 꼴이다.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압수 대상이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 저장 장치가 되면서 피압수자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털릴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하고 탈법적인 압수수색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부터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해까지, 압수수색의 모든 것을 다룬다. 또 윤석열 검찰 정권이 왜 뉴스타파를 죽이려 드는지, 현 정권의 폭압에 뉴스타파가 어떻게 맞서왔는지도 기록한다.			

도서출판 뉴스타파가 펴낼 예정인 <압수수색>(가제)은 2023년 9월 14일 뉴스타파 뉴스룸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 자택 압수수색, 2023년 12월 6일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강제 수사를 밀착 추적한 르포다. 실제 압수수색을 겪은 세 사람이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흥미롭게 압수수색과 포렌식 과정을 낱알이 폭로한다.

2024. 1. 31.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



뉴스타파함께재단은

독립매체 및 독립언론을 양성하고 연대 협업합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 후원회원님, 안녕하세요.

함께재단 사무국장 조연우입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새해 맞으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저는 '오랜 이유'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0년 끝무렵 한 손에 꼽힐 소수 인력으로 활동을 시작한 함께재단이 2023년 말 기준 631명의 정기 후원회원과 2957명의 뉴스쿨 프로젝트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 신개념 언론스쿨로 저희들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도전이었던 '뉴스타파저널리즘스쿨'은 순조롭게 이어져 올봄 3기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세 개의 독립언론이 탄생했고, 사무국 멤버도 두 명이 늘었습니다.

오직 진실의 편에 선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뉴스타파 설립 정신을 잇고,

뉴스타파와 같은 비영리 독립언론을 양성하는 것이 함께재단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해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활동을 본격화하고, 더 많은 독립언론, 비영리매체와 연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방향성과 실력을 갖췄지만 거대 언론사에 비해 조직력도 자본도 부족해 큰 힘을 내지 못하는 독립언론이 많습니다. 함께재단은 그들의 목소리가 곳곳에 울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도록 독립언론네트워크 구심점 역할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의미있고 흥미로운 책 출판도 준비 중입니다. 후원회원님과 만나는 오프라인 행사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이 모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후원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변함없는 응원에 힘입어 저희들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4.1.31. 조연우 드림